

## AAAAI 2012 참가 후기

경희대학교 이비인후과

조교수 신승엽

올해 AAAAI는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도 펠로우 2년차 때 아주대학교 박해심 교수님 권유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AAAAI에 참석하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때 당시 엄청난 규모의 학회장과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바닥에서 강의를 듣고 하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었고, 내용도 훌륭했다고(잘 듣지는 못 했지만) 생각한 까닭에 꼭 한 번 다시 참석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학회 등록, 호텔 예약까지 하고 알레르기 학회에 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원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기에 서둘러 취소하였다가, 대기자 명단 1순위였는데 누군가 취소를 하시는 바람에 지원이 된다는 학회 연락을 받고 또다시 등록과 호텔 예약을 하였습니다. 다소 출발 전부터 기운 빠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지원을 취소하신 선생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시간 걸려서 애틀란타에 도착 후, 다시 2시간 비행 끝에 올랜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학회장을 둘러보고 등록과 함께 책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학회 일정에 참가하였습니다. 학회에 열심히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루 정도는 놀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 보았지만, 올랜도에서는 디즈니 관광 외에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일본 디즈니랜드를 구경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그러한 곳에는 흥미가 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많은 이들의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학회만 줄곧 앉아 있다가 온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소규모 미팅 시간에 (40분씩 하는) 계속 신청을 하였는데, 그냥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심 분야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계속 토론하는데,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에서 온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면역요법의 새로운 방법들, intralymphatic injection, peptide immunotherapy 등에 대하여 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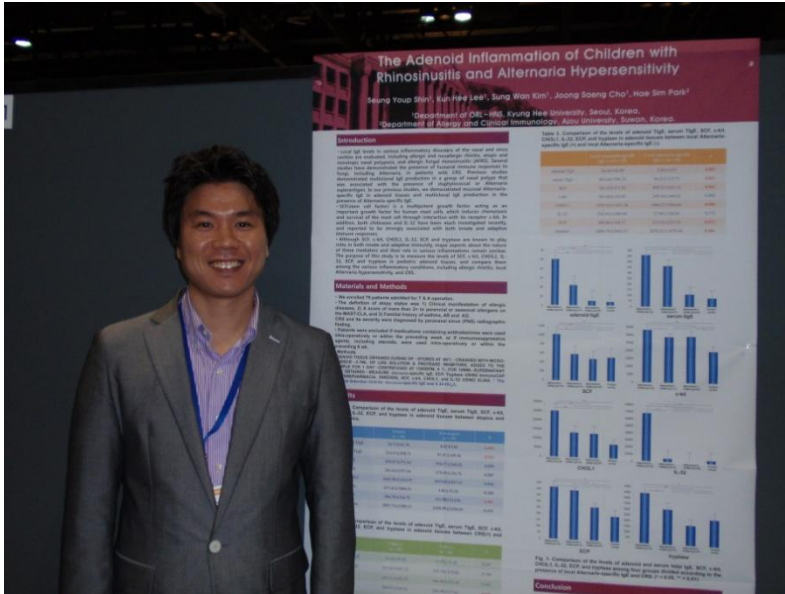
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새롭게 느꼈고, 그 외 알레르기 기전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참가했을 때 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참가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학회장에서 한국에서 오신 내과, 소아과 선생님들을 자주 마주쳤지만 함께 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 전날 저녁에 다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심교수님, 오재원 교수님, 나영호교수님, 안강모교수님 외에 30여분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소개를 하고, 이번 학회에서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재원교수님의 10년 넘는 연륜이 묻어나는 훌륭한 사회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안면을 익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서울대학교 김동영 교수님과 저만이 참석하였기에 좀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학회장과 호텔만 오가는 좀 재미없는 일정을 보냈지만, 그 동안 좀 소홀했던 연구에 대한 반성과 영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필자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평가하는 바입니다.



학회 전경



규격을 잘못 알고 프린터 해서 가져간 포스터 앞에서 한 장